

제1절 서화*

전남지역이 예향(藝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 남도창(南道唱)과 함께 서화가 남도 특유의 양식으로 자리잡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는 당시의 서화가 민족 고유의 독자성보다는 중국의 전통과 기법을 모방하고 답습하는 데 안주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한국미술사에서 가장 독특한 지방문화를 뿌리내린 지역으로 수많은 문화유산과 함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활발한 예술활동 그리고 이 지역에서 배출한 명가(名家)들의 조형정신이 한국예술의 특질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불교미술과 도자공예, 조선시대의 시문학·국악·서화 등이 남도 특유의 기법과 양식으로 자리잡고 그 찬란한 꽃을 피우면서 한국예술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순천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민속자료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 이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며, 찬란한 고려 불화(佛畵)의 맥을 잇는 남방 불소(佛所)가 있었던 곳으로 전남 동부지역의 문화를 대표하였다. 이렇게 비옥한 문화적 토양 위에 꽃피운 서화의 향기를 재음미하면서 순천 서화예술의 맥을 더듬어보고자 한다.

한 고을의 서화사를 기술하는 데는 전체적인 서풍(書風) 또는 화풍(畵風)의 흐름과 양식적인 변화보다는 유적과 작가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대구분도 조선시대의 경우 사기분류설(四期分類說)을 따르지 않고, 편의상 전기와 후기로만 구분하였다.

* 제1절은 전종주(全鐘柱) 집필임.